

‘금값’ 된 과일 대신 ‘냉동과일’ 먹는다

냉동과일 수입량 6만4000 t ‘역대 최대’... 전년 대비 6% 증가 사과 73%·배 38% 가격 상승에 냉동 블루베리·망고 등 인기

국산 과일값의 고공행진으로 지난해 냉동 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값 비싼 제철 과일 대신 가격이 저렴하고 저장성이 높은 냉동 과일을 대신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업전망 2024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냉동 과일 수입량은 6만4000 t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지난해 고물가와 더불어 질병 및 생육 기 이상악화 등으로 인해 국산 사과와 배 등 과일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단히 노력했지만, 과일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비교적 값싼 냉동 과일의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

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사과(후지) 10개의 소매가는 2만9715원으로 전년 동기(2만3069원) 대비 28.9% 높았다.

특히 과일 가격을 경정하는 수확기(11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국산 사과(후지) 가격은 전년 수확기에 견줘 73% 상승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9% 높았다.

또 사과와 함께 대표 과일로 꼽히는 배 역시 지난해 8-12월까지 전년 대비 견줘 38% 상승했다.

KREI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산 과일들의 공급량 감소로 인해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저렴한 냉동과일 수요가 늘어났다”며 “소비자들의 수요 및 정부의 대체재 마련 방안에 따라 냉동과일 수입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냉동과일을 구매하는 이유로 ‘저장성’을 꼽았다. KREI 농업관측센터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소비자 500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냉동과일 구매 이유로는 ‘저장 용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가공 섭취 용이(36%)’, ‘저렴한 가격(22%)’ 순으로 높았다.

이는 수요는 높지만 쉽게 상하고 비싼 신선과일 대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등 가공 섭취가 편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비싼 국산 과일을 대체해 냉동 과일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구매 경험 조사에서는 ‘냉동 블루베리’가 29.9%로 가장 높았고 냉동 망고(21.9%), 냉동 기타과일(13%) 순으로 높았다.

또 ‘향후 냉동과일 구매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들 중에서도 구매 의향 품목에서 ‘냉동 블루베리’가 23.6%로 선호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주요 과일(신선, 건조, 냉동 포함) 수입량은 정부의 할당관세 도입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 증가한 66만9000 t으로 전망된다.

KREI 연구원은 포도를 제외한 수요가 높은 열대과일·감귤류·기타 과일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2~1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윤영 기자 zh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겨울철 농사

더 빠진 농한기...가뭄일 찾아 나서는 청년 농부들

농촌에서 말하는 농한기(農閑期)는 바쁜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농번기(農忙期)를 대비하는 시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한기는 파종·재배·수확의 농사주기가 순환하는 전통사회에서 통과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근래 들어 벼농사를 중심으로 설정된 농한기의 개념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비닐 하우스를 이용한 각종 시설채소와 다양한 농산물의 생산·유통이 사계절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농번기에 집중된 노동력이 연중 고르게 분산된 것이다.

길다면 길 농한기에 선대 농부들은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 흥겨운 민속이었으니 한가하니 놀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겨울철 농한기라고 해서 허투루 시간을 쓰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배농을 수 없는 소일거리는 이듬해 사용할 농기구를 수리하고 새로 만드는 일이다. 곡식을 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벼섬이나 가마니 치기는 농한기의 필수 작업이었다. 이 밖에 명석·멧방석·동구마·삼태기·망태기·종다래끼 따위를 만드는 일과 밭줄(밭이나 소에 써레, 쟁기 따위를 매는 줄) 들이기, 새끼 꼬기, 약초 캐기 등이 모두 겨울철 농한기에 이루어지는 농가의 일상이었다고 한다.

닭이나 돼지를 사육하고 소·삼찌우기에 열중하던 1960-1970년 산업화 시대를 지나 1980년대가 되면 농촌에 ‘백색혁명’으로 불리는 비닐 하우스가 등장했고 농가에선 한겨울 오이와 고추, 토마토, 딸기에서 장미나 안개꽃 등 화훼작물까지 경작하며 열심히 살았다. 이 시기 특화작물로 손꼽혔던 농부들에겐 농한기가 짧게 느껴졌을 것이다.

농촌이 바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꽤 된 것 같다. 이런 겨울에도 놀지 않는다는 것으로,

농부들도 그만큼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도 그럴 것이 농촌의 노령화·공동화 현상과 영농기술의 발전으로 무작정 다음 농사를 준비하고 소일거리나 하던 전통적인 농한기의 개념이 무색해졌고 실제로 더 바빠진 것이다.

이젠 농촌의 농한기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 청년은 물론 노령인 어르신까지 겨울철 시설채소 재배하고 채소 교실 등으로 건강관리 하며 각자의 방식대로 농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한 청년들은 겨울이 오려면 더 바쁘다고 한다. 시설 하우스를 통해 특화작물을 재배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고, 미래 희망이 될 유망작물 키우는 방법도 연구하고 배우야 한다.

이러한 상황변화와 관련 최근 접한 시골로 귀농한 청년의 글은 의미심장하다. 귀농 청년이 처한 현실을 솔직하게 담았는데 내용은 이렇다.

“실제로 우리 집을 포함해 많은 농민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통 한해의 갈무리가 끝난 후 12월과 1월은 농한기지만 먹고살려면 농민은 쉴 새가 없다. 농번기에는 숨 가쁘게 자라나는 농작물 속도에 맞추느라 주말 없이 일하고, 농한기에는 쉼속 자라나는 내 어린 자식들을 먹이느라 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농작물을 재배해 얻는 소출만으로는 먹고살기가 영 뻘뻘해 우리 집을 포함해 주변의 청년 농부 여럿은 먹고살기 위한 단기 일자리 찾기에 매달려야만 했다. 이번 겨울 추위는 참으로 매섭고 슬펐다.”

힘겨운 농촌 생활에 대한 닳두리로 읽히지만, 가슴을 시리게 한다. 농번기는 물론 조금 여유를 가져도 좋을 농한기까지 일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하릴없이 농사 외에 가뭄일을 찾아 나선다니 마음이 찡하다.

/ bigkim@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농·축협 ‘신규직원 상생교육’ 실시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지난 15일과 16일 농협 구례교육원에서 전남 농·축협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농업·농촌의 올바른 이해와 농협정책 이해를 위한 신규직원 상생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은 지난해 전남 관내 농·축협 하반기 신규채용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상생교육은 상반기 참가자들의 좋은 호응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신규채용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됐다.

이번 상생교육 세부 프로그램은 ▲협동조합의 정체성 ▲CS(고객만족)기본과정 ▲소통과 공감의 팔로워십 등으로 구성됐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협의 국민경제 이미지 방안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성농업인 의존도 증가...‘맞춤 지원·교육 이뤄져야’

농경연, 여성농업인 감소세...노동력 부족 심각 대책 마련 시급

국내 농업에서 여성 농업인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들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에 따르면 국내 농가 수는 지난 2000년 138만 3000호에 달했지만, 지난 2020년 기준 103만 5000호로 34만 8000호(25.2%)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업인력 감소 흐름 속에서 여성 농업인에 대한 농촌의 의존도와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지난해 여성 농업인은 전체 농사일의 평균 50.2%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성 농업인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지난 2017년

14.1%까지 확대됐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2020년 절반 수준인 7.8%로 줄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농업인 일용근로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연평균 13%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60대와 50대 역시 각각 연평균 11%, 10% 감소했다.

KREI 연구원은 “여성 농업인을 위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개발 및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hang@kwangju.co.kr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 안내서 발간

시설 설치·관리 방법 등 소개

농촌진흥청(농진청)은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내서는 영농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수 정보를 망라한 1·2권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1권에서는 품목 선정, 재배 방식, 농지 선정과 취득, 시설 시공, 기자재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2권에서는 계절별 시설 환경 관리, 작물 생육 단계별 관리, 스마트농업 데이터 관리 요령 등을 상

세히 안내한다.

부록에는 지자체별 경영 실습 농장 목록과 스마트농업 교육장, 관련 누리집 정보가 담겼다.

안내서 제작에는 농진청 시설원예 및 농산업경영 분야 담당관과 전문상담사, 스마트농업 시공 기술사,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안내서는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스마트농업의 원리 이해와 시설 설치 안내서 발간, 시설 설치에 관한 고시 변경 등으로 달라지는 내용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hang@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천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 이 | 조선의
펴 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